위기 속에서 ‘사람’이기만 하기

(시편 46:1~11)

8.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9.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여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10.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뭇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11.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위기 속에서 ‘사람’이기만 하기>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위기 속에서 ‘사람’이기만 하기
본문 10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제목을 생각해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많은 이방신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들은 참 신이 아니지만 사람들은 그것들을 신으로 부르기 때문입니다. 그 많은 신들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심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오늘 말씀은 우선 우리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위기에 당면한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 흉내 내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리라’고 하십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곧 하나님 흉내 내기를 중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인면수심(人面獸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얼굴은 사람인데 마음은 짐승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짐승은 사람보다 악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비유적인 의미로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음을 뜻합니다. 왜 사람은 짐승이라는 비난을 받을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을까요? 사람의 얼굴을 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 흉내를 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 위에 계신 하나님을 흉내 내려했기에 마음이 짐승만도 못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얼굴이 사람인 것처럼 마음도 사람일 때에는 어떠한 위기나 문제가 주어져도 그것은 가벼운 일상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굴이 사람인 것처럼 마음 역시 사람이기만 하면 항상 기쁨이 넘칩니다. 사람은 그렇게 지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목표는 사람이기만 하면 됩니다. 사람이기만 하면 문제도 없고 위기도 가벼운 일상이 되고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대통령 장관 일류대학 재벌 무병장수 등을 꿈꿀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이제부터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라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본래 사람의 모습이 될 때에 걱정할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모습이 아닌 자들은 지금 하나님을 흉내 내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흉내를 내다가 망합니다. 인생이 고충이고 고생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에 이러한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곧 '지금 나는 타락하기 이전의 에덴으로 돌아갑니다.'라는 고백입니다. 타락하기 전의 사람은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의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마음은 몸으로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나 위기들을 만날 때에 호불호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로부터 도망가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피난 가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책임지려 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살 때에 문제와 위기를 만나면 반드시 판단과 생각이 필요하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기 전의 사람은 판단과 생각을 하지 않겠다고 자발적으로 하나님께로 도망을 칩니다. 아는 분이라고는 하나님 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선악과를 따먹지 않음이 곧 하나님께로 피난 가는 것입니다. 1절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라고 하는 시인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을 피난시켜서 하나님께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마음이 도망쳐야만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라는 말씀은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의 상태의 에덴으로 돌아가서 주어진 문제들을 외면하겠다는 것이고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본래 에덴이었던 삶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당면한 문제들은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에 의해서 처치됩니다. 내 몸을 움직여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이 내 몸을 장갑으로 끼시고 움직여 가시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참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께 돈 문제가 생겼다면 돈 문제를 마음으로 끌어안고 생각하고 그러한 과정 중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물론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연하게 행해지는 과정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흉내 내기이고 사람이기를 거절한 것으로서, 인면수심의 결과로 이어지는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하나님을 흉내 내려는 마음 때문에 짐승만도 못하게 되고 인생을 고충과 고통으로 가득 채우게 됩니다.

본문은 예루살렘 도성이 풍전등화와 같은 극단의 위험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으로 보존되었음을 찬양하는 시온의 노래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역사적 배경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많은 주석가들은 시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정황을 비추어 볼 때에 유다 13대 왕인 히스기야의 시대라고 추정합니다. 앗수르 산헤립의 침공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위기에 처했던 시기를 배경으로 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가 있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고, 밤중에 주의 사자가 산헤립의 군대를 무찔렀습니다.

그런데 이 배경보다는 4대 왕인 여호사밧 왕의 시대로 보여 집니다. 왜냐하면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의 연합군이 예루살렘을 침공하려고 했을 때의 상황이 오늘 시의 낱말과 구절들과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사밧 왕 때에 직접 고라자손들이 찬양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대하20:13). 이 연합군을 향하여 군대보다 성가대를 앞세워 나갔을 때에도 고라자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찬양대에 속했던 고라자손이 지은 시로 추측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한 배경을 가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는 무엇일까요?

모압 암몬 마온 사람의 연합군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모여서 예루살렘을 향해 진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위기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3절에도 기록되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진격해 들어올 때에 사람들은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나았다며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과는 반대로 이러한 위기에 처했을 때에 마음으로 위기를 끌어안고 고민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깁니다. 인간이면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하나님 흉내 내기입니다. 이 하나님 흉내 내기를 극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여호사밧 왕 때의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의 연합군이 침공 사건이고, 히스기야 왕 때의 앗수르의 산헤립 침공 사건이고, 출애굽 때에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가 진격해오는 샌드위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사람이 행해야 될 바른 행동은 위기로부터 마음이 하나님께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에덴에서는 긴박한 위기나 사소한 문제까지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 없었던 것처럼, 이 세상은 온통 하나님의 주체성이 나타나는 현장입니다. 본래 이 세상은 내가 살아가는 영역이 아닙니다. 직장에 나가고, 결혼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병이 나면 병원에 가고, 밥해먹고 등등의 모든 일이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사는 사람의 일은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므로 당면한 위기와 문제로부터 도망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라는 말이 본문의 짧은 시에서 세 번씩이나 반복 됩니다. 도망가는 것이 곧 사람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2~3절을 보면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

운데에 빠지든지 /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경천동지(驚天動地)의 위기가 주어지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현장을 떠나 하나님께로 피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은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선악과가 없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사람답게 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위기와 문제가 있더라도 선악과 대신에, 문제가 마음을 뚫고 들어온 상태를 십자가에서 죽은 자로 여겨야만 합니다. 문제가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원죄의 체질이고, 그렇게 이 세상을 마음으로 끌어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흉내 내는 일입니다. 이 세상의 일은 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손가락하나 까딱할 필요 없습니다. 단 하나님이 살아가시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야만 합니다.

'마음이 하나님께로 간다.'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여호사밧 왕 때에나 히스기야 왕 때에 나라가 위기에 처할지라도 나라보다 하나님이 우선이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일이 주어지고 어떤 상황이 주어지고 어떤 대상 앞에 있을지라도 호불호를 판단하거나 마음으로 끌어들여서 과제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더 우선적인 현실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나의 기쁨과 행복을 좌우하는 힘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세상을 끌어안으려 하고 스스로 잘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은 곧 내 기쁨과 행복을 결정적으로 좌우하시는 분이 하나님뿐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크시고 더 강하시며 더 세시고 더 큰 영향력을 가지신다는 믿음의 표현이 바로 내 마음으로 세상 문제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께로 도망가는 것으로서 나타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으로만 이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내 몸으로 하여금 밥을 먹게 하시고 빨래도 하게 하시고 직장 생활도 하게 하시고 세수하게 하시고 결혼하게 하시고 공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곧 내 몸으로 이루어진 삶을 사시는 당사자이십니다.

본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이 그 일에 가서 붙지 않고 그 일을 외면하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흉내 내려고 세상 문제를 마음에 받아들인 뒤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을 부리려고 하는데 신앙이 아닙니다.

타락 이전에는 이 세상을 이끌어 가는 유일한 주체성이 하나님이셨습니다.

나도 내 삶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보내고, 아내도 마음으로 가정의 일을 받아들이지 않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보냅니다. 그럴 때에 남편 속에도 하나님의 주체성이 주체가 되고, 아내 속에도 하나님의 주체성이 주체가 되고, 자녀들 속에도 하나님의 주체

성이 주체가 되셔야 합니다. 부모로부터 자녀들까지 온 가족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서 모든 가족 구성원의 마음에 하나님의 주체성이 임합니다. 그렇게 교회와 나라도 마찬가지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타락하면서 모든 인간이 삶을 향하여 주체적이 되어 하나님의 흉내를 내게 되었습니다. 지구에 70억 명이 있다면 70억 개의 주체성이 난리를 치고 있으니 세상이 요란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서 70억 명이 있더라도 세상은 단 하나의 주체성에 의해서 움직여야만 했습니다. 몸이 당하는 어떤 상황과는 관계없이 마음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평안과 만족과 기쁨을 누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풍랑 만난 배위에서 태연자약하셨습니다. 몸이 만난 상황에서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사밧 왕 때에나 히스기야 왕 때의 위기나 출애굽 때에 홍해를 앞두고 뒤에는 애굽 군대의 위기 속에서도 인간의 마음은 언제나 삼각관계에 있습니다.

이 삼각관계의 상황에서 하나님께는 산헤립의 침공이 위기가 될 수 없습니다. 암몬과 모압과 마온 사람의 연합군의 침공도 위기가 아닙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도 위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돈 문제도 하나님께는 위기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위기로 느끼시는 상황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문제를 향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기도는 하나님을 흉내 내고 살던 사람이 깜짝 놀라는 모습입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흉내를 내면서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큰 문제를 허락하심으로서 하나님 흉내 내기를 포기하고 사람의 본 모습으로 돌아가는 기도였습니다. 사람은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문제로부터 회피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끌어안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회피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도망가야만 합니다. 몸으로 만나는 모든 상황을 회피하고 책임지지 않으며 외면하는 것입니다.

내가 외면하면 이 문제가 더 악화되고 망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끌어안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으니 손 하나도 까딱할 수 없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도망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부활 승천하신 주님의 길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은 하늘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에 산헤립의 군대가 천사에 의해서 전멸 당했고, 여호사밧 왕 때에는 찬양대가 앞장서자 암몬의 연합군들이 서로를 죽이는 자멸이 일어났습니다. 출애굽 때에는 홍해가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후에 따르던 애굽 군대가 수장되는 역사가 우리 삶에서도 경험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으로 배부르기를 바라지만 잘 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기쁨과 만족의 대상이 되심을 고백하지만 잘 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흉내 내려는 원죄의 체질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자리는 대통령자리 장관자리 재벌자리 교수자리 의사자리 판사자리 목사자리 등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자의 자리가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자리입니다. 우리에게는 원죄의 체질이 죽을 때까지 발동하기 때문입니다. 이 원죄의 체질을 가진 우리가 설 수 있는 최고의 자리는 십자가의 자리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은 자라는 자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흉내 내기는 중단 되면서 그 자체로부터 삶은 기쁨과 행복이 됩니다. 히스기야 왕 때에나 여호사밧 왕 때에 또 출애굽 때에 선민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날마다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이 세상의 삶은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사람이 해야 될 일은 크던 작던 문제를 외면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피난 보내는 것입니다. 당면한 문제를 잘 해결한다고 해서 마음이 기뻐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우선이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삼각관계에서 하나님을 더 우선시하기 위해서는 세상을 외면해야만 하고 판단을 중지해야만 합니다. 이 세상일을 받아들이시고 판단하시는 것은 하나님만의 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거꾸로 생각해왔습니다. 하늘에는 하나님의 일이 있고 이 땅에서는 내가 해야 하는 일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한다고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먹고 자고 살아가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계신 곳을 피난처 삼아 가는 것입니다.

어떤 위기가 있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나 건강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어떤 문제 앞에서도 사람이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그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흉내 내지 마십시오. 본문에서 언급하듯이 먼저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서 평강을 누리면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5절을 보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라고 했습니다. 아침을 기점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경천동지의 위기가 눈앞에 있어도 마음을 하나님께 보내고 밤에 잠을 잘 자고나면 아침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싶으시다면 모든 위기와 문제 앞에서 마음을 하나님께 보내고 잘 주무시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하나님 흉내 내느라 망했습니다. 이제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의 자아의식을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순간을 맞이함으로서 하나님 흉내 내기를 끝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순간들로 나의 생이 가득 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